

유치원 의무교육 제안... 초1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유치원 →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추가 예산 약 3조4800억 소요 예상
교실 밀집도 낮춰 맞춤형 교육 제공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무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만0~3세는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만4~5세는 유아학교(현 유치원) 진학을 의무화하는 구상이다. 조 교육감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내용을 담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만0~3세는 어린이집 '보육중심', 만3~5세 유아학교 '교육중심' 구상

유치원 의무교육 핵심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만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만3~5세 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 선택해 입학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3~5세 유아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통 커리큘럼을 담은 '누리과정'을 운영한다.

조 교육감의 '유치원 의무교육'은 유아 연령대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아학교에 가는 만0~3세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받고, 만 4~5세는

유아학교를 다니도록 바꾸자는 게 골자다. 만0~3세의 보육은 유아 가정에서 선택하고, 만4~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 중심의 의무교육을 하자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약 3조4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국회에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아 발의된 뒤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제도 정비와 현직교사의 자격증 갱신 절차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과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개선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교사 자격 및 보수체계, 부처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이뤄나갈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수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학급 수 현 40%에서 '2024년 90%까지' 계획

서울시교육청은 질 높은 출발선보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지원하고, 교실 밀집도를 낮춰 높은 공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시내 초1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비율은 현재 39.1%(220개교) 수준이지만, 교육청은 교실을 더 확보해 내년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23년에는 70.1%, 2024년엔 이 비율을 최대 90% 수준까지 높여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달성을 위한 학급 추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 비품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12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별 학급 수는 12월 초 학교에서

신청한 학급 수요와 학교의 공간 여건, 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중 확정하고, 담임교사는 정규 교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간 부족 등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어려운 1학년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학교 희망을 받아, 기간제 교원을 협력교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더욱 더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정책이 1학년뿐 아니라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학교·학생 배치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카이스트-삼성,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신설

5년간 신입생 500여명 선발 반도체 특화 인재 양성 나서

KAIST가 학부 졸업 후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로 취업하는 신입생을 5년간 500여명 선발한다.

KAIST는 25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삼성전자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특화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KAIST가 삼성전자와 채용을 조건으로 한 별도의 학과를 만들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양 기관과 평택시는 지난 7월 '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KAIST 이광형 총장(왼쪽)과 삼성전자 강인엽 사장이 25일 '반도체 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IST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르면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2022년 3월 신설되고, 2023년까지 2년 간 기존 무학과로 입학한 학

생들이 2학년 진학 시점 진입하게 된다. 2023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4년간은 애초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신입생으로 매년 100명 내외를 선발한다. 학과 학생 전원은 특별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과정은 ▲반도체 시스템 기초 ▲반도체 시스템 심화 ▲현장 체험 및 실습으로 구성했다. 특히 삼성전자 견학과 인턴십, 공동 워크샵 등의 활동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또 KAIST 교수진과 삼성전자 멘토가 참여하는 강의·실습·양방향 토론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다주택자 공무원에 인사상 불이익 준다

서울시, 주택 관련 업무 배제

앞으로 다주택자인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강도 높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 적용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 현황, 위장 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같은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2차 검증 결과

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월, 7월)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ik1@

중앙대, '다빈치AI대학원' 정식 개원

과기부 선정 국가공인 대학원

중앙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국가공인 인공지능대학원인 다빈치AI대학원이 24일 개원식을 열고 정식 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규 중앙대 총장과 백준기 다빈치AI대학원장을 비롯해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김진형 인천재능대 총장, 로버트 오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부사장, 이성환 인공지능대학원 협의회장,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김승환 LG 연구소장, 김윤 SKT테크센터장, 이종민 SK텔레콤 COO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원한 중앙대 다빈치AI대학

원은 올해 4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국가공인 AI대학원이다.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은 10년간 최대 19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석·박사급 고급 AI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1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대는 지난 3월 박상규 총장 취임 이후 교육·연구·행정 전 분야에 AI가 중심이 되는 'AI 캠퍼스 구축'을 선언하고, 인공지능위원회 구성, AI공동연구·AI아카데미 설립 등의 노력을 시행한 결과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한 중앙대 다빈치AI대학원은 24일 정식 개원을 계기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현진 기자

오늘부터 청계천 일대서 '서울빛초롱축제'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청계천 일대에서 '2021 서울빛초롱축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축제 주제는 '빛으로 물든 서울 힐링의 숲'이다. 느릿나무, 비밀의 문,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등 치유의 숲을 테마로 한 56세트 83점의 등(燈)이 청계천 청계폭포부터 장통교까지 약 700m 구간에 전시된다.

시는 전시 구간 입구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해 시민들이 발열체크, 전자출입 명부작성 등을 마친 뒤 관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빛초롱축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AR(증강현실)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로도 만나볼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문휘창 석좌교수(왼쪽에서 네번째) 학교발전기금 기탁식에 김종렬 총장 직무대행(왼쪽에서 세번째), 진정란 입학처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한국외대 문휘창 교수 학교발전기금 기탁식

안정적인 학습 환경 제공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23일 오후 2시 대학 사이버관 총장실 부속 회의실에서 '문휘창 석좌교수 학교발전기금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종렬 총장 직무대행, 이선영 교학처장, 진정란 입학처장, 박현일 기획처장, 성은경 TESOL

대학원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이버한국외대 문휘창 석좌교수는 기탁식에서 "교수는 마음껏 강의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은 돈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평소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장학금 기탁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장학금 기탁을 통해 사이버외대 학생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